

A. T.피어선 박사의 신학방법론 -그의 신학적 철학의 특징들¹⁾

안명준(평택대학교)

한글초록

이 연구는 피어선 박사(Arthur Tappan Pierson, 1837-1911)가 자신의 작품가운데 베이컨의 귀납법적 방법을 통하여 성경을 분석하고 종합하여 자신의 신학적 방법으로서 신학적 철학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집중적으로 조명하였다. 피어선은 성경을 바르게 연구하는 것을 자신의 신학연구에 평생의 과제로 삼았다. 그에게 있어서 신학을 올바르게 탐구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것을 말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방법의 기초가 될 수 있는 논리적 체계를 찾았는데 그것이 바로 베이컨(Francis Bacon, 1561~1626)의 경험주적 귀납법적 논증 방법이었다. 베이컨이 주장한 관찰과 분석, 그리고 입증을 통하여 이론을 유출하듯 피어선 역시 이런 방식을 통하여 신학적 철학이라는 그의 독특한 신학연구 방법론을 만들었다. 이런 신학방법을 통하여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그의 신학의 목적을 이루게 되었다.

신학적 철학이란 성경 그 자체(*ipso facto*)가 진리를 증거하고 모든 것들을 성경에 맞추어서 검증하여 성경적 일치와 조화를 이루는 성경신학적 방법이다. 신학의 탐구는 성경을 왜곡하지 않고 정직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오류가 없는 성경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참된 성경의 진리를 증거하는 목적에 도전을 주었다. 성경의 하나님을 왜곡없이 사실 그대로 보여주고 성경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증거하는 그의 신학방법으로서 신학적 철학이야말로 피어선의 신학을 가장 가치있는 공헌으로 볼 수 있다.

주제어: 피어선, 신학방법, 귀납법적 방법, 베이컨, 신학적 철학, 성경신학

I. 서론

본 연구는 피어선 박사(Arthur Tappan Pierson, 1837-1911)가 자신의 작품가운데 베이컨의 귀납법적 방법을 통하여 성경을 분석하고 종합하여 자신의 신학적 방법으로서 신학적 철학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집중적으로 조명하였다. 피어선은 성경을 바르게 연구하는 것을²⁾ 자기의 신학연구에 평생의 과제로 삼았다. 신학을 올바르게 탐구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것을 말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런 과업을 위해서 당시 혼란했던 시대적 조류 속에서 자신의 방법의 기초가 될 수 있는 논리적 체계를 찾았는데 그것이 바로 베이컨의 경험주적 귀납법적 논증 방법이었다. 베이컨이 주장한 관찰과 분석, 그리고 입증을 통하여 이론을 유출하듯 피어선 역시 이런 방식을 통하여 신학적 철학이라는 그의 독특한 신학연구 방법론을 만들었다.³⁾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피어선은 신학이 성경을

1) 이 논문은 2014학년도 평택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2) 아더 T. 피어선, 『성서의 영적이해』 (서울: 보이스사, 1985), 25. 진정한 연구는 확실한 증거가 없을 때 믿을 수 없고 적절한 증거가 있을 때 믿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을 밝혀 낸다.

탐구하는 도구가 되어야한다고 본다. 따라서 신학적 전제들의 중요성을 먼저 인식하고 그것들에 기초하여 자기 자신만의 독특한 신학방법인 신학적 철학을 주장하였다. 이런 신학방법을 통하여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그의 신학의 목적을 이루게 되었다.

본 연구는 아더 피어선 박사의 신학방법으로서 그의 신학적 철학의 특징들을 찾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그가 중요하게 간주한 베이컨의 귀납적 방법을 먼저 살핀 후에 그가 사용한 신학의 방법들을 고찰할 것이다. 그의 방법은 어떤 기존의 인물의 의견이나 어떤 권위에 따라서 성경을 탐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입증하는 것이다. 최근 그의 신학연구와 관련해서 몇 개의 연구가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학방법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가 현재까지 없는 상태에서 본 연구의 시도는 그 의미를 찾는다.

II. 베이컨과 피어선

16세기 초에는 중세의 방법과 전혀 다른 새로운 학풍이 일어났다. 특별히 성경 해석학 분야에서는 인문주의자였던 에라스무스(Desiderius Erasmus Roterodamus, 1466-1536)가 중세의 4중적 해석 방법(a four-fold method of interpreting Scripture)을 단절하여 역사적 문법적 해석(the historical-grammatical method)을 주장하였다. 에라스무스를 비롯한 루터(M. Luther), 쾰링글리(Huldrych Zwingli) 그리고 칼빈(John Calvin)과 같은 개혁자들을 통하여 기독교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16세기 후반을 지나 17세기 초에는 진리처럼 인정받은 기존의 학문 연구 방법에 대해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여 새로운 연구방법론을 열어준 패러다임의 변동이 일어났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 가운데서 현대의 과학연구 방법론에 획기적인 선도적 업적을 보여준 철학자가 바로 프랜시스 베이컨(Francis Bacon, 1561~1626)이다.⁵⁾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다'(scientia est potentia)라는 말로 그의 철학적 특징을 보여주는 자로서 아더 태핀 피어선(Arthur Tappan Pierson)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물론 베이컨의 방법이 시대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미신과 독단 그리고 권위로 가득찬 과거의 전통을 청산하고 경험과 실험에 입각한 귀납법을 수립한 점이 후대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⁶⁾

피어선의 신학방법론에 기초가 된 베이컨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하나는 베이컨의 유명한 이상론이며 다른 하나는 그의 귀납법적 방법론이다.

1. 베이컨의 이상론과 귀납법

베이컨이 이상을 제거하라고 주장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기존의 전통적이며 시대적

3) 아더 T. 피어선, *The Coming of the Lord* (New York: Fleming H. Revel, 1896)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 안명준 옮김 (평택: 평택대학교출판부, 2013), 10-14.

4) 전대경, “아더 피어선의 변증적 방법론으로서의 성서 해석 원리” (Ph.D. 평택대학교, 2011). 안명준, “피어선의 성경연구 원리,” 『한국개혁신학회』 제 30권 (2011): 154-81. 안명준, “A. T. Pierson의 성경해석 방법론,” 『조적 신학연구』 6 (2005): 104-135. 유정우, “변증가로서의 아더 T. 피어선,” 『복음과신학』 6 (2003): 53-75.

5) 송하석, “근대 경험론의 선구자 프랜시스 베이컨,”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88&contents_id=3069.

6) 김영한, “베이컨의 방법 그 의의와 한계,” 『역사학보』. 92 (1981): 137-173. 그는 베이컨의 방법에서 핵심적 요소는 관찰과 실험 그리고 법칙의 발견으로 보지만, 관찰과 실험에 대한 그의 지나친 강조는 역으로 경험에 입각하지 않은 모든 이성작용을 불신하게 만들어서 가설과 수학을 비 경험적이라고 경시하였다고 한다(163).

흐름으로서 중세의 스콜라적인 방법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연역법적 방법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자신이 참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귀납법 방법론을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하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그는 먼저 처음에 편견이란 우상이 타파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 베이컨은 인간의 지성이 바른 진리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편견을 우상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이 우상이 파괴되면 편견이 자동적으로 제거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사상은 피어선 박사에게도 자주 나타나며 매우 중요한 그의 신학적 체계를 세우는 틀이 되었다.

베이컨은 그의 책 『신기관』(*Novum Organum*)에서 인간의 정신을 사로잡고 있는 4가지의 우상에 대하여 논의한다. 바로 종족의 우상(*idola tribus*), 동굴의 우상(*idola specus*), 시장의 우상(*idola fori*), 그리고 극장의 우상(*idola theatri*)이다.⁷⁾ 첫 번째로 베이컨이 주장하는 종족의 우상이란 인간의 주관적 성향에 관한 것이다.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고유한 것으로, 사람들을 오류로 이끄는 위험한 충동을 가리킨다”⁸⁾고 한다. 인간은 냉철한 이성보다는 항상 “감정과 의지 때문에” 잘못된 판단으로 이끌려가기가 쉬운데. 이것은 사람들이 복잡한 것을 싫어하고 “단순함을 추구하거나 어떤 목적을 추구하려는 성향”⁹⁾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인간은 “지성의 불완전성을 완전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데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¹⁰⁾고 보았다. 이것으로 인해 인간은 선입관, 감정 개입, 감각의 무력 때문에 이 우상이 생겨난다고 한다. 두 번째로 동굴의 우상이란 어느 정도 각 개인의 한계적 “특수성에서 나타나는 오류로 각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별한 성향을”¹¹⁾ 의미한다. 그것은 개인의 본성에 의한 것이나 교육이나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 아니면 각자가 존경하고 찬양하는 사람일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인간은 선입관이나 편견에 의해 사로잡힌 상태에서 어떤 것이 인간 안에 형성된다고 한다.¹²⁾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잘 파악해서 자신의 주관적인 성향을”¹³⁾ 버려야 이 우상이 제거된다고 베이컨은 말한다. 세 번째로 시장의 우상은 우리 인간은 늘 다른 사람들의 언어에 쉽게 현혹되는 경향을 말한다. 만일 사람들은 시장에서 물건을 매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만나 언어를 사용하여 여러 스토리를 교환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언어사용의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의 불완전성 때문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언어와 일치하는 실재”가 실제적으로 존재한다고 믿는다고 한다. 예를 들어 “운명의 여신을 실재하는 신으로 숭배한다거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서 나오는 ‘제 1질료’, ‘부동의 운동자’ 등과 같은 것”¹⁴⁾을 믿는다는 것이다.¹⁵⁾ 네 번째로 극장의 우상은 기존의 학자들에 의해서 “역사적으로 형성된”¹⁶⁾ “학문적 체계를 맹신”¹⁷⁾으로 따른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마치 “무대에서 환상적인 연극적 세계를 만들어내는 각본과 같은 것”¹⁸⁾이라고 한다. 이 우상은 “그릇된 논증의 규칙에 의해 공공연하게 주입되고, 신봉”¹⁹⁾되는 것이라 한다.

7) Bacon's *Novem Organum*, Edited by Thomas Fowler (Oxford: The Clarendon Press, 1889), XXXIX, 213.

8) 박은진, 베이컨 『신기관』 (해제) (서울: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6), 14.

9) 박은진, 베이컨 『신기관』 (해제), 14.

10) 박은진, 베이컨 『신기관』 (해제), 48.

11) 박은진, 베이컨 『신기관』 (해제), 14.

12) 박은진, 베이컨 『신기관』 (해제), 14.

13) 박은진, 베이컨 『신기관』 (해제), 15.

14) 박은진, 베이컨 『신기관』 (해제), 15.

15) 박은진, 베이컨 『신기관』 (해제), 52.

16) 박은진, 베이컨 『신기관』 (해제), 15.

17) 박은진, 베이컨 『신기관』 (해제), 56.

18) 박은진, 베이컨 『신기관』 (해제), 56.

19) 박은진, 베이컨 『신기관』 (해제), 56.

그러므로 베이컨은 학문이 새로운 방향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종래의 아리스토텔레스적이며 스콜라적 편견인 '우상'을 배격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과학과 기술의 진보에 어울리는 새로운 인식 방법은 실험에 기초한 귀납법적 연구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바른 지식을 갖기 위해서는 경험과 관찰을 중히 여기는 경험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사물을 하나하나 확인하여 마지막으로 근본 원리를 찾아내는 방법, 곧 귀납법이 가장 바른 학문의 방법이라고 '노뎀 오르가눔'에서 주장하였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삼단논법은 단지 명제들 사이의 관계만을 설명할 뿐, 새로운 지식을 알려주지 않고 자세히 관찰과 조사가 없다고 한다.²⁰⁾ 그래서 그는 올바른 과학의 방법을 항해사의 나침반에 비유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과학의 바다에서 항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학자의 나침반은 무엇일까? 베이컨은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확고하고 유용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두 가지를 제시한다. 첫 번째는 기존의 편견을 제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연의 원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귀납적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²¹⁾ 베이컨은 과학적 방법으로 실험과 관찰에서 얻은 사실과 추론을 통하여 일반적인 원리와 법칙을 만들어내는 그것을 귀납법이라고 한다.²²⁾ 바로 베이컨의 방법을 사용한 신학자들, 특히 1840년에서 1877년까지의 프린스턴 신학교의 신학 교수였던 찰스 하지(Charles Hodge)같은 신학자는 베이컨식 스타일로 성경의 영감론을 발전시켰다.²³⁾

2. 피어선에 나타난 베이컨의 영향

베이컨은 피어선의 신학의 중심에 있는 철학자였다. 베이컨의 사상과 방법은 피어선의 많은 작품 안에서 자주 중요하게 언급되었다.²⁴⁾ 특별히 성경해석과 관련하여 피어선은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으로 프랜시스 베이컨을 언급한다. 그만큼 그에 대한 학자로서 존경은 대단하였다.²⁵⁾ 또한 베이컨을 매우 독창적인 철학자로 보았다.²⁶⁾ 심지어 피어선은 자신의 글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논리적 강화를 위하여 예화를 사용할 때도 베이컨의 작품을 자주 언급하기도 하였다.²⁷⁾ 이처럼 피어선에 있어서 베이컨이 너무나 중요한 근본 이유는 피어선이 베이컨으로부터 배운 그의 방법론 때문이었다.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의 문제점을 발견하여 새로운 방식의 변화를 추구하였던 베이컨이 주장하는 올바른 학문의 방법론은²⁸⁾ 피어선에게 올바른 신학방법의 근본 토대를 제공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피어선이 베이컨의 철학을 수용하기 쉬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어려서부터 논리적인 사고와 강한 지적 호기심으로 과학과 종교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²⁹⁾ 피어선은 돌을 수집하던 소년 시절부터 자연 과학에 흥미를 갖고 있었다. 그는 과학 및 과학자들 예를 들어 독일의 자연학자이자 탐험가인 바론 폰 훔볼트(Baron Von

20) 네이버캐스트, “영국 고전경험론의 창시자: 프랜시스 베이컨,” 인물세계사,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75&contents_id=199.

21) 송하석, “근대 경험론의 선구자 프랜시스 베이컨”.

22) 송하석, “근대 경험론의 선구자 프랜시스 베이컨”.

23) 데이나 로버트, 『내가 올 때까지 완수하라: 피어선의 생애와 세계 복음화』, 유윤종 옮김 (서울: B&A, 2004), 153.

24) 아더 T. 피어선, 『오류 없는 증거들』 1, 유정우 옮김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2), 99-100.

25) 아더 T. 피어선, 『성경연구의 진수』, 홍성국 옮김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1), 41.

26) 피어선, 『오류 없는 증거들』 2, 62.

27) 피어선, 『오류 없는 증거들』 2, 84.

28) 베이컨이 내세웠던 신기관은 이미 그 당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했던 라무스(Petrus Ramus, 1515-1572) 논리학의 이념을 그대로 이어받아 발전시킨 것이다.

29) 로버트, 『내가 올 때까지 완수하라: 피어선의 생애와 세계 복음화』, 153.

Humboldt)와 프랑스의 수학자이며 철학자인 블레이크 파스칼(Blaise Pascal)에 대한 대중적인 글쓰기를 좋아하였다.³⁰⁾ 이런 그의 자연과학과 인문학에 대한 그의 지적인 능력은 그의 작품 속에서 풍부하게 나타난다. 특별히 피어선은 베이컨의 귀납적인 논증에 근거한 관찰과 증거를 통한 원리를 찾는 방식에 매료 되었다. 바로 이런 귀납법적 체계가 자신의 학문적 방법에 최적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이런 베이컨의 방법은 피어선의 신학 방법에 중요한 기초석이 되었다. 피어선은 빙햄턴에서 목회하던 1860년대 초반에 본격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증거를 공부하기 시작하였다. 특별히 베이컨의 방식인 관찰과 분류라는 과학적 원리에 따라 성경의 예언을 조직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과학과 신앙 사이에 어떤 모순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하게 되었다.³¹⁾

피어선은 성경의 사실들을 증명하기 위하여 “아리스토텔레스와 베이컨”이라는 논문을 저술하였다. 여기서 그는 가정된 법칙 혹은 추측한 이론으로부터 출발하여 설명이 필요한 현상으로 내려가는 추론적이며 연역적인 아리스토텔레스적 방법을 거부하였다. 베이컨의 방법은 사실을 설명하는 적합한 가설이 입증될 때까지 사실들을 분석하고 분류하는 것이었다.³²⁾ 이와 같이 베이컨의 귀납법적인 영향으로 피어선은 자신의 저서들 가운데 기존의 잘못된 스콜라신학과 그런 해석방법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성경적 신학연구의 바른 방법을 추구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다. 베이컨의 방법이 피어선에게 시작된 첫 모습은 바로 인간의 정신을 붙잡고 있는 편견과 오류를 어떻게 바라보며 해결할 것인가에서 시작된다. 그가 쓴 책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에서 피어선은 첫 페이지부터 아리스토텔레스의 연역법을 비판하고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정직한 사고를 가지라고 서술한다. 인간은 오류를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탐구와 연구의 참된 출발점임을 상기시키고 있다. 신학연구에서의 정직한 사고 방식을 베이컨으로부터 배웠다. 피어선은 베이컨이 주장한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며, 언어 사용에서도 불완전하며, 선입견으로 인해 이성적이지 못한 점을 성경적 신학적 관점에서 적용하였다. 피어선은 이런 방법을 가지고 자신의 쓴 저서가 바로 『오류없는 증거들』이다. 이 책에서 피어선은 성경을 공격하고 파괴하려는 세력에 대하여 예언과 기적을 귀납법적 방식으로 설명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래서 기존의 연역적 틀이 아닌 새로운 방식 즉 귀납법적인 관찰과 실험과 증명을 통하여 사실을 입증하는 방식을 사용하게 된 점에서 큰 영향을 받았다. 또한 피어선은 독단적인 교리 연구를 피하고 성경신학적 교리의 정립을 위하여 귀납적인 성경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즉 독단적인 추리와 관념적인 교리만을 강조하거나 연역적 사유 방식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 속에 있는 것을 풀어서 집을 짓는 거미와 같다고 하는데 이런 설명도 베이컨의 영향이다. 마지막으로 피어선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신앙적 위기를 극복하는데 바로 베이컨의 방법에서 큰 도움을 받았다. 첫 목회사역 동안에 피어선이 겪은 신앙의 위기는 가장 심각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사역의 초기에 자신의 믿음의 총체적인 기반이 흔들렸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베이컨의 방법을 통한 깊이 있는 신학연구를 통하여 기독교에 대한 증거를 연구하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으며 초기의 위기를 해소함으로써 그는 일생동안 베이컨주의적인(Baconian) 귀납적 성경 연구에 몰두하였다.³³⁾

30) 로버트, 『내가 올 때까지 완수하라: 피어선의 생애와 세계 복음화』, 153.

31) 로버트, 『내가 올 때까지 완수하라: 피어선의 생애와 세계 복음화』, 58.

32) 로버트, 『내가 올 때까지 완수하라: 피어선의 생애와 세계 복음화』, 60-61.

33) 로버트, 『내가 올 때까지 완수하라: 피어선의 생애와 세계 복음화』, 62.

III. 피어선의 신학방법론

피어선의 신학방법론은 베이컨의 귀납법적인 논증 방법을 철저히 따르면서 성경이 말하는 내용을 철저히 분석하고 종합하여 입증된 참된 원리를 유출하는 방법이다. 먼저 그는 신학의 전제가 바르게 설정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이를 위해 편견과 오류를 제거하고 정직한 사고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이것을 출발점으로 삼아 피어선은 기존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의 연구 방법론으로 베이컨의 귀납법적 방법론을 신학연구의 틀로 사용한다. 그는 이런 귀납법적 신학의 연구를 신학적 철학(a divine philosophy)이라고 부른다. 피어선은 신학적 철학의 체계를 통하여 좀더 성경자체에 근거한 성경신학으로 향해 나간다.

1. 신학방법론의 출발점

피어선은 올바른 신학방법의 전제로서 먼저 편견과 오류의 제거하고 정직한 사고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1) 편견의 제거와 오류의 인정

첫 번째로 편견의 제거이다.³⁴⁾ 피어선은 편견과 오류의 제거가 참된 연구의 출발로 본다. 인간이란 편견으로 사로잡힌 존재이며 불완전한 존재인 것을 먼저 인정하고 정직한 사고가 신학연구에 필요하다고 본다. 잘못된 전제의 제거는 새로운 증거를 위한 시작이라고 한다. 이것은 베이컨의 이상론에서 가져온 개념이다. 편견이 인간의 정신을 사로잡고 있는 한 어떠한 새로운 진리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러한 기존의 잘못된 사상이나 논리로 채워진 것을 편견이라고 하는데 베이컨이 말하는 이상이다. 올바른 신학방법을 위해서는 이상으로서 편견을 철저히 제거해야 한다고 피어선은 역설한다. 선입견을 없애는 것이다. 베이컨은 인간의 정신을 근본적으로 사로잡고 있는 이상들을 제거하는 것이 올바른 사고를 위하여 필요한데 바로 선입견을 없애는 방법이라고 한다. 피어선은 신학 방법의 첫 출발이 바로 편견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한다. 피어선의 편견에 관한 논의는 베이컨의 이상론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으며 매우 중요한 그의 신학적 체계를 세우는 기초가 되었다. 편견이란 듣기도 전에 혹은 다른 충분한 조사 전에 판단하는 것이다. 편견은 객관적이며 타당한 증거나 직접적인 경험과는 관계없이 어떤 대상에 대하여 극단적인 선호를 갖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지나치게 비선호의 태도를 갖는 것이다. 사실상 기독교 역사에서 이런 편견은 로마카톨릭 교회의 신학자들에게 많이 나타났다. 자신들의 전통적 편견을 갖고 성경적 근거를 통하여 개혁적 사고를 하는 자들에 대하여 편견과 오만 속에서 핍박을 감행하였다. 이런 편견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는 심각한 오류로 인해 교회의 부패를 초래하게 되었다.

두 번째는 오류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성적 관찰과 분석을 통하여 인정하는 것이며, 인간의 부족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과 성경으로 나갈 것을 제시하는 것이다. 피어선은 먼저 오류의 원인은 정의를 바르게 정립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고 보았다. 예를 들면 회의론자인 흄이나 스트라우스같은 사람들은 기적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34) 피어선,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 10-11.

확정하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어선은 기적이 있다 없음을 논쟁하기 전에 먼저 기적이 무엇인가? 라고 논의를 시작한다. 즉 정의를 내리는 것은 모든 토의의 근거가 된다고 한다. 왜냐하면 그 정의는 논쟁이 다루려고 하는 근거와 한계를 정하고 명확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것은 논의의 범위를 제한시키는 것이며 싸움의 규칙과 같다고 한다.³⁵⁾ 이런 그의 주장은 베이컨이 세 번째 우상으로 지목한 시장의 우상과 같은 것이다. 베이컨은 인간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실재를 충실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단어의 조합으로 생긴 개념에 대응하는 실재가 있다고 생각하여 공론에 빠진다고 주장하였다.³⁶⁾ 마찬가지로 피어선은 인간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가지고는 하늘의 것을 표현한 진리를 완전하게 이해 할 수 없다고 한다.³⁷⁾ 그래서 언어와 관련하여 오류를 제거하는 방법은 궤변주의자들과 같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럴듯한 진술과 논증으로 수사학적 가면을 벗겨내고 그 논리적인 결론들까지 추적할 수 있다면 그 불합리성과 오류가 명확하게 된다고 한다.³⁸⁾ 또한 오류는 의심에서 발생한다고 본다. 왜곡되고 사악한 의지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불신이 나온다고 한다. 그렇지만 때때로 정직한 의심도 필요하다고 한다. 정당한 의심이란 믿을 이유가 없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며, 또 증거가 없는 사실을 믿지 않는 의심이고 한다. 우리는 지성을 가진 존재이기에 주의 깊게 증거들을 연구한 다음에 무엇이 진실하고 무엇이 허위라는 것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한다.³⁹⁾ 이성을 가진 우리가 맹목적으로 믿음을 받아드려서는 안된다고 한다. 기독교의 증거를 연구하고 깨닫는 사람은 의심을 제거한다고 한다.⁴⁰⁾ 진정한 연구는 확실한 증거가 없을 때 믿을 수 없고 적절한 증거가 있을 때 믿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을 밝혀낸다고 한다.⁴¹⁾ 맹목적인 믿음은 진리를 잘못 믿게하고 오류를 크게 만든다고 한다.⁴²⁾ 맹목적인 믿음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옳은지 그른지를 용납하지만 자신들의 사고방식만을 고집하는 광신자로 만든다고 한다. 피어선은 이런 사람들은 모슬렘이며 로마 카톨릭 교황주의자들이라고 한다.⁴³⁾ 오류는 성경진리에 대한 무지에서 발생하며, 언제나 빛을 무서워한다고 한다. 그들은 오류와 부패를 밝히는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성경읽기를 범죄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지성적 신념은 믿음을 확고하게 만든다고 한다. 성경에 무지한 사람들은 왜곡된 것들로 인해 멸망을 당한다고 한다.⁴⁴⁾

오류의 발생원인은 인간에게 필연적이라고 한다. 그래서 인간은 오류를 인정해야 한다고 피어선은 말한다. 피어선은 인간은 스폰지와 같은 존재라고 한다. 다른 것을 쉽게 흡수하여 불안정한 영혼이 되어 다른 사람을 쉽게 믿게되는 존재라고 한다.⁴⁵⁾ 그러나 진리는 부정하고 의심에 빠져 결국 믿음이 파멸한다고 한다.⁴⁶⁾ 모든 인간의 사상에는 오류가 있다고 본다. 특히 자신이 살던 지난 세기의 이신론은 자연 종교의 주장을 시인하므로 많은 것을 인정하였지만, 그러나 이제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모든 것이 사실로 진실로 입증되고

35) 피어선, 『오류 없는 증거들』 1, 102-3.

36) 송하석, “근대 경험론의 선구자 프랜시스 베이컨”.

37) 아더 T. 피어선, 『성서의 영적 삶』 (서울: 보이스사, 2007), 379.

38) 아더 T. 피어선, 『아더 T. 피어선의 기독교 신앙변증』, 이광희 옮김 (평택: 평택대학교, 2015), 17.

39) 피어선, 『오류 없는 증거들』 1, 15.

40) 피어선, 『오류 없는 증거들』 1, 18.

41) 피어선, 『성서의 영적 이해』, 25.

42) 피어선, 『오류 없는 증거들』 1, 20.

43) 피어선, 『오류 없는 증거들』 1, 20.

44) 피어선, 『오류 없는 증거들』 1, 21.

45) 피어선, 『오류 없는 증거들』 1, 21.

46) 피어선, 『오류 없는 증거들』 1, 22.

증거되어야 한다고 한다.⁴⁷⁾

피어선은 오류는 의심을 해결하면 제거된다고 한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다고 한다. 인류에게 자신의 뜻을 계시하신 성경은 하나님의 손으로 명백하고 실수 없는 방법으로 기록되고 하나님이 서명과 인장을 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의심을 해결하고 만족시켜 주는 여러 가지 오류 없는 증거들이 있다고 한다.⁴⁸⁾ 피어선은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 성경 전체의 구절을 비교하여 얻은 증거를 찾으라고 한다.⁴⁹⁾ 성경을 전체로 관찰하여 어떤 것들을 비교함으로써 더 풍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⁵⁰⁾ 피어선은 인간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증거없이 만족할 어떤 권리도 갖고 있지 않다고 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오류나 잘못을 저지르는데 데 익숙하고 그렇게 오도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 누구도 자신있게 자기가 오류가 없다고 주장할 자 없다고 한다.⁵¹⁾ 또 오류를 만드는 로마 카톨릭 교회를 예로 들면서, 피어선은 선입관이나 편견의 경향을 갖는 로마 카톨릭 교회는 잘못된 교의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성경을 왜곡한다고 한다.⁵²⁾ 피어선은 인간의 오류는 결국 가장 오류가 없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눈을 열어 죄를 깨닫게 하시고 깨끗이 씻어 주셔야 한다고 한다.⁵³⁾ 그리고 오류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기독교의 증거를 주의 깊게 정직하게 연구하라고 한다.⁵⁴⁾

2) 정직한 사고의 필요성

그런데 피어선은 편견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직한 사고를 가져야 한다고 한다. 정직한 사고는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편견을 제거하고 사실과 진실과 그리고 학문의 올바른 탐구를 가능하게 한다고 한다. 정직과 관련하여 피어선은 때로는 과학자들도 지적으로 정직하지 않는다고 한다. 과학적 신조나 종교적 체계를 좋아하여 편견을 갖게 됨으로, 그들은 지적 사시자라고 한다. 그래서 오직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보며, 선입견이나 선입된 개념의 관점에서 교묘하게 사실들과 특징들을 배열한다고 한다.⁵⁵⁾ 피어선은 신학 방법의 참된 첫 출발점으로 편견을 제거하라고 하는데 바로 정직한 사고를 가지면 우리가 기존에 가졌던 기존의 편견(prejudice)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한다. 성경을 정직하게, 진지하게, 부지런하게 탐구하는 것, 곧 말씀의 심장에 감동되는 인내와 기도하는 침투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 하나님의 진리의 보고를 가지고 있는 마음은 만족을 알고 기뻐하는 사람은 다른 어떤 증거도 필요 없다고 한다.⁵⁶⁾

피어선은 그가 쓴 *The Coming of the Lord*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책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설득의 방식에⁵⁷⁾ 필요한 3가지 요소인 *ethos*(credibility), *logos*(logical fallacies), 그리고 *pathos*(emotional appeal)를 서두에 진술한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진리는 첫 번째로 어떤 대상이 그 본래의 모습 속에서, 두 번째로는

47) 피어선, 『오류 없는 증거들』 1, 15.

48) 피어선, 『오류 없는 증거들』 1, 14.

49) 피어선, 『성경연구의 진수』, 223.

50) 피어선, 『성경연구의 진수』, 248.

51) 피어선, 『오류 없는 증거들』 1, 117.

52) 피어선, 『오류 없는 증거들』 1, 30.

53) 피어선, 『오류 없는 증거들』 1, 24.

54) 피어선, 『오류 없는 증거들』 1, 26.

55) 피어선, 『오류 없는 증거들』 1, 186.

56) 피어선, 『오류 없는 증거들』 1, 188.

57) “Modes of persuasion,” https://en.wikipedia.org/wiki/Modes_of_persuasion, 2015-6-20.

그것이 관계되는 것 안에서, 세 번째로는 그것을 보는 매개체 속에서 정의되는 어떤 것”⁵⁸⁾이라고 주장한 것을 소개한다. 그러나 이런 견해를 하찮은 공리(a trifling maxim)로 보는 피어선은 우리에게 특별하게 필요한 것은 절대적으로 정직한 사고(an absolutely candid mind)라는 것이다.⁵⁹⁾ 또한 그는 한 발자욱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이런 기존의 사고체계에 대해 뒤집어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자신의 하나의 논리의 대안으로 정직한 사고를 내세우게 된다. 그는 새로운 틀을 형성하기 위하여 새로운 사고의 패러다임을 내세우는 그것이 바로 정직한 사고라는 것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하여 이 정직한 사고의 시작은 먼저 기존에 있던 학문의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던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의 논리 방식에 대하여 그 한계와 오류를 지적하는 것이다.

정직한 사고란 우리가 심각한 오류(serious error)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한다. 우리가 진리의 기초로 세운 근본체계가 근본적으로 오류가 있을수 있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라고 한다. 모든 학문의 세계에 내포된 오류에 대하여 진지하게 열린 자세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바로 이것이 정직한 사고라고 한다. 신학연구방법의 진정한 탐구의 참된 출발점이라고 단언한다.⁶⁰⁾ 피어선은 편견과 오류를 제거하는 것, 또 절대적인 정직한 사고를 신학 연구의 가장 근본이 되는 출발점으로 인식한다.

2. 신학방법론으로서 신학적 철학의 특징들

피어선은 연구란 기본적으로 두 과정이 있다고 한다. 하나는 분석이고 다른 하나는 종합이라고 한다. 전자는 갈라놓고 후자는 모아 들이는 것이다. 이것은 구성 요소가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분석했던 구성 요소들을 취합하여 각각의 특성과 양태를 살펴서 공통적인 성격과 유사성에 근거하여 새롭게 각각을 통합하는 것이다.⁶¹⁾ 그렇다면 피어선이 사용했던 신학적 철학의 방법은 무엇인가 살펴보자.

1) 인간적 철학을 거부

베이컨의 귀납법적 방법을 사용한 피어선은 신학적 철학이란 성경의 문을 여는 열쇠로 본다. 또 신학적 철학이란 진리의 탐구에서 우리가 수용하는 교리 체계들이나 우리가 신봉하는 사상이나 공상이 아니라 신적사실(divine facts)에 대한 연구이라고 한다.⁶²⁾ 신비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문을 여는데 바로 신학적 철학만이 열 수 있다고 한다.⁶³⁾ 기존의 연역법과 삼단논법을 비판한 베이컨이 자연철학을 주장한 것처럼 피어선도 자신의 신학방법을 신학적 철학(philosophy of theology)이라는 용어로 사용한다. 이 말은 신학에서 있어서

58) 아더 T. 피어선, *The Coming of the Lord*, (New York: Fleming H. Revel, 1896), 5. “It was a remark of Aristotle that truth is what an object is in itself; secondly, in its relations, and thirdly, in the medium through which it is viewed.” 피어선,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 10.

59) A. T. Pierson, *The Coming of the Lord*, (New York: Fleming H. Revel, 1896), 1. “It may seem a trifling maxim, but I venture to utter it: that nothing is so necessary to us and nothing is so unusual in us, as an absolutely candid mind.”

60) 피어선,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 10.

61) 피어선, 『성경연구의 진수』, 226.

62) 피어선,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 11-13.

63) 피어선,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 13.

철학적 논리체계를 강조하는 의미에서 쓰여졌다.⁶⁴⁾ 신학적 철학이란 인간적 철학을 반대하는 것이다. 인간적 철학(human philosophy)이란 피어선에 있어서 신학적 철학과 대비적인 말이다. 피어선은 세속적인 모든 철학이 다 인간적 철학이라고 규정하지 않는다. 그가 말하는 인간적 철학이란 피조된 창조세계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하는 자연신론이나 이신론과 같은 것이다. 대표적인 사람들은 이신론자인 데이비드 흄과 같은 사람이며, 잉거솔과 같은 무신론자들이다. 특히 잉거솔(Ingersoll)같은 무신론자들에게는 오직 순종만으로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데, 피어선은 영적 인식을 하는 방법이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위대한 가르침 중에 하나라고 한다.⁶⁵⁾ 그런데 이들은 자신의 철학에 매여 있으며 양심을 비난하고 자기의 이기적 관심에 매여 있으며,⁶⁶⁾ 자신의 편견으로 가득차서 아무리 많은 증거가 있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은 소경같은 자들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인간적 철학이란 진리를 마음으로 받아들일 자세를 전혀 갖지 않는 철학이다. 그러나 피어선은 바로 마음이 신학을 만든다고 한다.⁶⁷⁾ 또 인간의 철학이란 도덕적이고 정신적 진리에 대하여 단순하게 가르치는 인간적 교훈의 경향만을 암시한다고 한다.⁶⁸⁾ 그래서 그것은 완전하지 않고 모두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다고 한다. 그러기에 인간의 철학은 참으로 구원의 길을 주지 못한다고 한다.⁶⁹⁾ 인간의 철학은 육적이고 결함이 있으며 진리를 보지 못하며,⁷⁰⁾ 기이한 불합리와 공상이 가득한 어리석음으로 구성된 인간의 체계를 말한다.⁷¹⁾ 이렇게 피어선은 인간적 철학을 반대하고 신학적 철학을 주장한다.

2) 귀납적 논증 방식

신학적 철학(a divine philosophy)은 귀납법적 논증 방식을 사용한다. 신학적 철학은 결과만 중시하는 연역법에 대하여 철저한 반대로부터 시작된다. 연역법에 따른 편견과 오류에 사로잡힌 인간철학을 반대하는 것이 신학적 철학이다. 신학적 철학을 세우는 방법론이 바로 베이컨의 귀납법적 논증이었다. 귀납법적 관찰과 증거들을 통하여 추출된 것들이 성경에 일치되는지 검증하는 방식인데 이것을 신학적 철학이라고 말한다.⁷²⁾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에 의해서 확인하고 점검하며,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다.⁷³⁾ 귀납법적 성경적 신학적 철학이다. 이것은 베이컨의 귀납적 방법에 의하여 성경을 분석하고 증거하는 철학적 체계를 말한다. 피어선이 주장하는 신학적 철학이란 전통적인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의 연역법적 논증체계를 거부하고 베이컨이 주장한 귀납적 논증체계를 따른 것이다. 이것이 그가 주장하는 신학적 철학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나타난 사실들을(facts) 모아서 분류하고 정리하는 귀납적 법칙을 통한 신학 방법이다. 그에게 있어서 참된 신학의 방법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사변과 논리에만 의존하는 연역법적 논증 방식을 벗어나 관찰과 실험에 의한 검증 그리고 참된 경험을 중시하는 베이컨의 귀납법적

64) 피어선, 『성경연구의 진수』, 248-250.

65) 피어선, 『오류 없는 증거들』 1, 46.

66) 피어선, 『오류 없는 증거들』 1, 138.

67) 피어선, 『오류 없는 증거들』 1, 138.

68) 피어선, 『오류 없는 증거들』 1, 206.

69) 아피어선, 『오류 없는 증거들』 1, 207.

70) 피어선, 『오류 없는 증거들』 1, 41.

71) 피어선, 『오류 없는 증거들』 2, 159.

72) 피어선,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 11.

73) 피어선,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 26.

논증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어떤 인간의 전통이나 권위가 아닌 오직 성경을 성경으로 증거하는 성경신학이다. 이런 면에서 피어선은 루터(Martin Luther)와 칼빈(John Calvin)의 종교개혁 정신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다. 피어선은 베이컨의 귀납법이 종교개혁 특히 귀납적 방법을 성경 연구에 적용한 마틴 루터로부터 유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어선은 성경을 왜곡시켜 자신들이 미리 정해놓은 교리를 강제적으로 적용하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채택한 아리스토텔레스적인 방법, 즉 연역법적 성경연구 방법을 거부했다. 그러나 베이컨의 귀납적인 성경 연구는 성경자체가 가르치는 사실이 무엇인지를 조사하고 비교하는 것이다. 지식은 신앙에 이르는 길이며, 신앙은 정확한 지식을 얻는 경험적인 증거라고 한다.⁷⁴⁾ 여러 기록들을 비교하여 얻은 내용에서 사실과 원칙을 이끌어 내고 증거를 축적하는 것이다.⁷⁵⁾ 대조와 비교가 원인이 결과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어렵지 않는 귀납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한다.⁷⁶⁾

3) 사실자체의(*ipso facto*) 증거

신학적 철학이란 신적 사실을 다루 것이라고 한다. 사도행전 6장과 7장에 보면 편견으로 가득찬 유대인들과 지도자들이 스테반을 잡고 공회에서 거짓 증인들을 세웠다. 이 본문에 이어 피어선 박사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사도행전 7장을 시작한다고 한다. 먼저 6장에서 거짓증인들이 공회에서 스테반에 대해 거룩한 곳과 율법과 관련하여 증언한 것에 대하여 7장 초두에 대제사장이 “이것들이 사실인가?” (are these thing so?, ταῦτα οὕτως ἔχει)라고 말한다. 또한 피어선은 말하기를 “그것은 스테반이 나사렛 예수가 유대인들의 기존 풍습들을 바꾸어야 하고 그들의 오래된 모든 질서를 파괴하기까지 해야 한다는 대담한 주장을 하였다는 것”⁷⁷⁾이라고 한다. 그래서 피어선은 “이스라엘 민족의 학식과 지혜를 대표하는 공회원들은 마음에 결코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하며 “(그 때 대제사장이 말했던) 이것들이 사실인가?라는 특별하지만 중요한 질문을 하였다”고 한다.⁷⁸⁾ 여기서 피어선은 대제사장의 단순한 질문은 근본적인 것이라고 한다. 그가 추론하는 하는 것은 이런 상황속에서 그 어느 다른 회당들의 대제사장들도 당연히 여기 7장의 초두에 있는 그와 동일한 질문을 하였을 것으로 본다. 피어선 박사는 다시 이 본문을 적용하여 새로운 해석을 보여준다. 즉 “이것들이 나의 이전의 관념들 혹은 내가 수용했던 교리 체계들 혹은 내가 신봉하는데 익숙한 특별한 사상들에 부합하는가?”가 아니라 “이것들이 사실인가?”하는 것이다.⁷⁹⁾ 진리를 추구하는 우리의 모든 탐구 속에서 우리는 먼저 공상이나 철학들이 아니라 사실들(facts)을 다루어야 한다. 사실자체를(*ipso facto*) 증거하라고 한다. 피어선은 *ipso facto*(by the fact itself, 바로 그 사실에 의해서, 또는 앞에서 언급한 그 사실 때문에) 방식을 성경연구에서 사용하도록 한다.⁸⁰⁾ 결국 하나님의 말씀 연구에서 신적 사실(divine facts)을 다루는 것이 신학적 철학을 뜻한다고 한다.

74) 로버트, 『내가 올 때까지 완수하라: 피어선의 생애와 세계 복음화』, 61.

75) 피어선, 『오류 없는 증거들』 1, 49-51.

76) 피어선, 『오류 없는 증거들』 1, 57.

77) 피어선,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 11.

78) 피어선,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 11.

79) 피어선,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 11.

80) 피어선,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 47.

4) 언어와 이성을 넘어

신학적 철학이란 언어의 불안전성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한다. 피어선은 신학적 철학이 필요한 이유는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필연적으로 불완전하다는 것이다. 인간의 이해를 위한 명료한 모든 언어는 인간의 경험의 단계에 속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과 신적학적 철학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한다.⁸¹⁾ 철학자란 진리의 주인이 아니라고 한다. 피타고라스가 레온에게 자기는 “나는 주인 아니다. 단지 지혜를 사랑하는 자일 뿐이다”라고 말한 것을 소개하면서 인간은 지혜자체가 아니며 진리의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⁸²⁾ 철학자인 인간의 가르침 속에는 영원한 진리가 없다고 한다.⁸³⁾

신학적 철학이란 이성을 활용하지만 이성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한다. 피어선은 계시안에서 이성의 활동을 적극 지지한다. 합리적 이성적 시험이 배제되지 않는다.⁸⁴⁾ 이성적 근거 위에서 성경을 탐구하라고 한다. 또 계시의 진리를 위하여 논쟁하는데 있어서 신앙을 강제로 추구하지 않게 한다. 인간의 마음을 강압적으로 하지 않게 한다.⁸⁵⁾ 그러나 이성적 연구는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뛰어넘을 수 없다고 한다. 피어선은 성경을 탐구함에 있어서 우리는 인간의 모든 표현을 뛰어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무한한 사상과 이상 그리고 권위가 성경 안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한다. 성경이 제시하는 것은 너무 높아서 인간이 쉽게 접근하기 힘들다고 한다.⁸⁶⁾ 이성을 초월한 성경의 신적인 요소를 제거해서는 안된다고 한다. 성경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모든 것을 제거하면 신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한다..⁸⁷⁾

성경은 신비하신 여호와와 작품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신비가 있다고 한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신비한 성경의 많은 것들을 하나님 자신의 모순으로 돌리지 말고 우리 인간의 통찰력의 약함과 부족함에 두라고 한다.⁸⁸⁾ 인간은 하나님의 신비한 것을 알 수 없지만 오히려 신비로 인해 피어선은 하나님을 경배한다. 하나님의 신비들을 역설로서 이해할 수 없다면 하나님 자신 안의 모순으로 보지 말고, 오히려 인간의 통찰력이 약한지 또 인간이 점검하는 수단이 모호한지를 보라고 한다. 그래서 그는 인간의 경험과 언어의 한계를 인정하고 신학적 철학과 함께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라고 한다.⁸⁹⁾ 성령님이 계시하신다는 것을 받아드리고 기달리라고 한다.⁹⁰⁾ 피어선의 사상은 유한은 무한을 포착 할 수 없다(*finitum non capax infiniti*)라는 개념으로 하나님을 표현한다. 무한한 하나님을 공간이 담을 수 없고 시간이 그를 제한시킬 수도 없다. 하나님은 무한하고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며 조합되며 합해질수 없다고 한다.⁹¹⁾

5) 마음과 사랑의 철학

81) 피어선,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 44.

82) 피어선, 『오류 없는 증거들』 2, 116.

83) 피어선, 『오류 없는 증거들』 2, 117.

84) 피어선, 『오류 없는 증거들』 1, 15.

85) 피어선, 『오류 없는 증거들』 1, 137.

86) 피어선, 『성경연구의 진수』, 209.

87) 피어선,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 43.

88) 피어선, 『오류 없는 증거들』 1, 43.

89) 피어선,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 44.

90) 피어선, 『오류 없는 증거들』 2, 72.

91) 피어선,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 42.

신학적 철학이란 마음과 사랑으로 접근하는 것이라 한다. 첫째로 피어선은 신학적 철학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고 한다.⁹²⁾ 연구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살아있는 말씀에 사로잡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진리 가운데 성경 연구자들에게 성경을 접근하여 그들로 깨닫게 하신다.⁹³⁾ 또 정직한 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며, 기독교의 증거를 연구하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눈을 주님에게 완전히 의존하는 것이며,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을 발견하는 자들이다. 편견이나 교만, 사악한 불신과 마음을 변덕스럽게 하는 다른 소리를 듣지 않고 오직 하늘의 음악을 듣는 것이다. 성경 그 자체에 포함된 내적인 증거를 찾는 것이다. 성경의 신비한 증거를 발견하려고 준비된 마음을 갖는 것이라고 한다.⁹⁴⁾ 인간 자신의 유일한 소망은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그리고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 전적으로 통합되는 것이라고 한다.⁹⁵⁾

두 번째로 피어선은 신학적 철학이란 사랑의 철학으로 접근하는 것이라고 한다. 철학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피어선은 거부감이 없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에도 철학이 있다고 한다.⁹⁶⁾ 그것은 에피쿠로스나 스토아주의처럼 불안정한 인간적 철학이 아니다. 여기서 피어선은 자기를 부정하고, 이성과 의에 의해 움직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인간을 사랑하는 철학이 하나님을 이야길 할 때 그것이 신학이라고 한다.⁹⁷⁾

6) 성경신학적 방법

신학적 철학이란 성경신학이다. 피어선의 신학적 철학은 성경을 바르게 접근할 수 있는 열쇠나 또는 안내자와 같은 성경적 신학이다. 신학적 철학이란 피어선이 성경적 신학을 세우기 위한 뼈대와 같은 것이다. 피어선은 신학적 철학이 궁극적으로 성경신학이 되어야 함을 역설한다. 피어선은 성경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성경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가치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한다.⁹⁸⁾ 그리고 철저한 비평적 분석의 법칙이 모든 성경 연구를 지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⁹⁹⁾ 그가 이렇게 철저한 분석을 주장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피상적인 지식으로 성경을 치명적으로 그릇되게 해석하기 때문이라고 한다.¹⁰⁰⁾ 피어선은 참으로 공평하고 학문적인 정신으로 연구할 것을 권면한다. 교묘한 이론을 버리고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루어야 한다고 한다.¹⁰¹⁾

그의 신학방법은 베이컨의 귀납법 방법을 사용하여 성경을 분석하여 성경자체가 증거하고 성경에 일치하는 성경신학적 방법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신학적 방법론이다. 핫지(Charles Hodge)를 비롯한 당시 미국의 많은 장로교 신학교의 교수들은 베이컨의 귀납적 방법론을 구학파 계열에서 지배적으로 사용하였다. 특별히 찰스 핫지는 하나님의 의지와 속성을 정신이 충분하게 생각할 수 없다고 본 회의주의자들에게 대답하기 위하여 베이컨에게

92) 피어선, 『오류 없는 증거들』 1, 138.
 93) 피어선, 『오류 없는 증거들』 1, 139.
 94) 피어선, 『오류 없는 증거들』 1, 187.
 95) 피어선, 『오류 없는 증거들』 1, 31.
 96) 피어선, 『오류 없는 증거들』 2, 158.
 97) 피어선, 『오류 없는 증거들』 2, 159.
 98) 피어선, 『성경연구의 진수』, 127.
 99) 피어선, 『성경연구의 진수』, 126.
 100) 피어선, 『성경연구의 진수』, 127.
 101) 피어선, 『오류없는 증거들』 1, 28.

전환하고 귀납적인 신학 경향(inductive theological predilections)을 지지하기 위하여 그의 학문적 방법으로 전환하였다.¹⁰²⁾ 합리주의에 나타나는 사변적 방법과 술라이어마허와 같은 신비주적 방법을 비판하면서 핫지는 귀납적 방법을 주장하는데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신학의 모든 사실들을 잘 조사하고 이끌어 내며, 성경에서 찾아낸 사실들로부터 원리들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한다.¹⁰³⁾ 마찬가지로 피어선도 성경은 스스로가 성경의 저자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밝히며, 높이며, 영광스럽게 한다고 한다.¹⁰⁴⁾ 이처럼 성경은 피어선에게 있어서 신학의 핵심적인 가치이다. 또한 피어선은 성경 그 자체가 해석자임을 말하면서 그 스스로가 문법이며 문자 사전이며, 도서관이며, 백과사전이 된다고 한다. 그 자체 안에 역사를 해석하는 철학이 있으며 철학을 설명하는 역사가 있다고 한다.¹⁰⁵⁾ 성경은 스스로가 증거한다고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스스로의 길을 가게 하라고 한다.¹⁰⁶⁾

또한 성경의 중요한 주제들을 계시의 점진적 과정을 따라서 세밀한 부분 즉 보다 구체적이고 미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추적하라고 한다. 성경에는 연속적이며 점진적인 가르침이 있다고 한다. 성경의 주제들은 지엽적이며 기초적인 것으로부터 더 높고 완전한 것으로 발전되고 있음이 발견된다고 한다.¹⁰⁷⁾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기에 우리는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이것을 잘 간직해야 한다고 한다.¹⁰⁸⁾ 우리는 우리의 신학의 목표를 결정화하는데(our plan of crystallization) 맞지 않는 것들을 거부해야 한다고 한다. 피어선은 과거의 편견과 전통의 교리로 굳어진 조직신학의 반성을 촉구하면서 성경 신학(biblical theology) 선호한다. 성경신학은 이성을 추상적으로 사용하는 아리스토텔레스 방식(the superficial Aristotelian method of reason)으로 시작하지 않으며, 하나의 가설로 시작하지 않으며, 사실들을(the facts) 포장하지 않고, 또 왜곡된 교리(dogma)를 만들기 위하여 철학으로 시작하지 않고, 오히려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들을 모아서, 사실들을 분류하고 정리할 수 어떤 일반적인 법칙으로 귀납시키는 것을 추구하는 베이컨의 체계(Baconian system)에 근거한 신학이라고 한다. 폴 헤지스(Paul Hedges)는 베이컨의 귀납적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근본주의 크리스찬들 가운데서 좋아하는 성경해석 방법이 되었다고 한다.¹⁰⁹⁾ 피어선의 신학은 처음부터 성경에서 시작하여 성경으로 매듭을 짓는다.

피어선은 우리에게 질문한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무엇을 배우느냐? 그것은 우리의 신학적 철학이 성경의 교리와 부합해야하며, 우리는 순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끌려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성경으로 늘 돌아가서 말씀에 의해 입증하는 것이라 한다.

IV. 결론

102) Paul C. Gutjahr, *Charles Hodge: Guardian of American Orthodox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354.

103) 이승구, “이성과 계시 문제에 대한 찰스 핫지의 견해,” 『찰스 핫지의 신학』, 길자연, 강웅산 편저 (서울: 솔로몬, 2009), 72-77.

104) 피어선, 『성경연구의 진수』, 13.

105) 피어선, 『성경연구의 진수』, 15-16.

106) 피어선, 『성경연구의 진수』, 20-21.

107) 피어선, 『성경연구의 진수』, 260-1.

108) 피어선, 『오류 없는 증거들』 1, 26.

109) Paul Hedges, *Controversies in Contemporary Religion: Education, Law, Politics, Society, and Spirituality* (Santa Barbara: Praeger, 2014), 35.

기독교에 새로운 도전들이 나타나던 시기에 피어선은 베이컨의 귀납법적 방식에 크게 도움을 받았다. 이런 그의 영향은 피어선의 신학방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런 그의 귀납법적 방식은 편견과 오류를 제거하고 정직한 사고를 신학방법의 출발점으로 삼아 자신의 신학적 철학이라는 신학방법을 태동시켰다. 즉 분석과 입증을 사용하는 베이컨의 귀납적 사고를 이용하여 피어선은 성경은 오류가 없는 수많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 연구에 적용하였다. 오늘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성경자체의 해석적 역할을 배제한 포스트모던 신학은 피어선의 방법에서 비판의 대상이 된다. 이런 잘못된 신학은 인간적 철학에 근거한 것이다. 피어선은 피조된 창조세계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하는 자연신론이나 이신론과 같은 인간적 철학을 경고하였다. 따라서 피어선이 성경 그 자체(*ipso facto*)가 진리를 증거하고 모든 것들을 성경에 맞추어서 검증하여 성경적 일치와 조화를 이루는 성경신학적 방법을 주장한 점은 오늘날에도 신학의 모델로서 충분한 공헌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의 신학은 처음부터 성경에서 시작하여 성경으로 매듭을 짓는다. 신학의 탐구는 성경을 왜곡하지 않고 정직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오류가 없는 성경을 철저히 분석하고 참된 성경의 진리를 증거하는 목적에 도전을 주었다. 성경의 하나님을 왜곡없이 사실 그대로 보여주는 방식과 오류가 없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증거하는 그의 신학적 철학의 중심적 특징으로서 성경신학적 방법이야말로 피어선의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비록 피어선은 믿음의 중요성을 무시하지 않았지만 베이컨의 경험주의적 논증이 성경을 지나치게 이성적이며 경험적으로 인간의 체험적인 한계안에서 진리로서 증거하려는 경향에 유혹될 수 있는 점도 경계해야 할 요소이다.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지나치게 증거하는 것에만 집착하는 증거위주의 결정성을 추구하는 유혹을 뿌리친다면 그의 방법은 올바른 성경연구에서 많은 유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피어선의 신학적 방법으로서 신학적 철학의 연구가 주로 베이컨의 귀납법적 방법과 관련하여 제한적으로 연구되었다. 앞으로 추후 그의 방법론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의 모습을 파악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확대 연구의 논의가 요구된다. 그런 논의 방향 속에서 피어선의 신학방법의 또 다른 흥미있는 면을 보여주는 영적인 방법에 대한 연구를 제언한다. 그리고 피어선이 신구약 성경을 성경신학적인 관점에서 다룬 통합적인 연구도 추후 과제로 남겨둔다.

<Abstract>

A. T. Pierson's Theological Method: Features of His Divine Philosophy

Myung Jun Ahn(Pyeongtaek University)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rocess forming "the philosophy of theology" which Arthur Tappan Pierson(1837-1911) made as his own theological method to analyze and synthesize the data of the Scripture through Bacon's inductive method. In order to study the Scripture correctly, Pierson regarded it the task of his life time. According to him to study theology correctly is to let the

Scripture itself speak. In doing so, he found the logical system as the basis of his method. That was the very experimental inductive method of Bacon. As Bacon draw the theory through the observation, analysis, and proof, Pierson also made the philosophy of theology as his own theological method through this way. This theological method made him accomplish his theological goal.

The Philosophy of theology is the method of the biblical theology that the Scripture itself (*ipso facto*) witnesses the truth and makes a unity and a balance with everything and the Scripture. He challenged us to see the Scripture correctly without waisting it and with a honest and pure heart. His philosophy of theology and biblical theology made a valuable contribution of Pierson's theology.

Keywords: Pierson, Theological Method, Inductive Method, Bacon, Philosophy of Theology, Biblical Theology

참고문헌

1차 문헌

- Pierson, A.T. *The Coming of the Lord*, New York: Fleming H. Revel, 1896.
 피어선 아더 T.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 안명준역, 평택: 평택대학교, 2013.
 ----- 『아더 T. 피어선의 기독교 신앙변증』, 이광희역, 평택: 평택대학교
 피어선기념성경연구원, 2015.
 ----- 『하나님의 선교계획』, 안명준역, 평택: 평택대학교피어선기념성경연구원, 2008.
 ----- 『지난 반세기의 전진운동』, 안명준역, 서울: 보이스사, 2008.
 ----- 『전도사역의 원리와 실제』, 서울: 보이스사, 1985.
 ----- 『설교의 영적기술』, 서울: 보이스사, 1984.
 ----- 『설교자를 위한 자료모음집』, 이광희 옮김, 서울: 보이스사, 2004.
 ----- 『최상의 복음』, 서울: 보이스사, 1982.
 ----- 『성경공부의 열쇠』, 홍성국 옮김, 서울: 보이스사, 1987.
 ----- 『하나님의 능력』, 안명준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2.
 ----- 『오류 없는 증거들』, 1, 2, 유정우 옮김,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2.
 ----- 『고르디우스의 매듭』, 양유성 옮김, 천안: 아이디프리티, 2010
 ----- 『성경연구의 진수』, 홍성국 옮김,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1.
 ----- 『성서의 영적 삶』, 서울: 보이스사, 2007.
 ----- 『성서와 영적 비평』, 서울: 보이스사, 1985.
 ----- 『성서의 영적 이해』, 서울: 보이스사, 1985,
 ----- 『선교의 위기』, 이광희 옮김, 천안: 아이디프리티, 2009.

2차 문헌

- 고광국. “피어선의 선교전략과 실제에 관한 연구”. 신학박사학위논문, 평택대학교 신학전문
 대학원, 2009.

- 김상훈. “피어선 박사의 성경적 설교학.” 평택대학교논문집 12 (1999): 55-74.
- 김영한. “베이컨의 방법 그 의의와 한계”, 『역사학보』. 92 (1981): 137-173.
- 네이버캐스트, “영국 고전경험론의 창시자: 프랜시스 베이컨,” 인물세계사,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75&contents_id=199.
- 박은진. 베이컨 『신기관』 (해제), 2006,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네이버 지식백과].
- 로버트 데이나. 『내가 올때까지 완수하라』, 서울: 도서출판 B&A, 2004.
- 『아더 피어선과 복음주의 운동』, 박달진 옮김, 서울: 도서출판 양서각, 1988.
- 송하석. “근대 경험론의 선구자 프랜시스 베이컨,”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88&contents_id=3069.
- 신현수. “피어선의 성서관.” 『복음과 신학』 12 (2010): 142-156.
- 안명준. 『성경 조직신학』, 성경말씀사관학교, 2014.
- “피어선의 성경연구 원리,” 『한국개혁신학회』 제 30권 (2011): 154-81.
- “A. T. Pierson의 성경해석 방법론.” 『조직신학연구』 6 (2005): 104-135.
- 신학적 해석학 상, 서울: 이컴비즈넷, 2005.
- 신학적 해석학 하, 서울: 이컴비즈넷, 2009.
- “한국교회의 신학적 문제점.” 『한국교회의문제점과 극복방안』 안명준 편,
 서울: 이컴비즈넷, 2006.
- “신학방법론의 길잡이: 기독교 강요의 이해를 위한 칼빈의 신학적 전제 요소들”,
 『칼빈해석학과 신학의 유산』, 서울: CLC, 2009.
- 유윤종. “피어선의 문학적 언어학적 성서이해.” 『복음과 신학』 11 (2009): 198-212.
- 유정우. “변증가로서의 아더 T. 피어선”, 『복음과신학』 6 (2003년): 53-75.
- 이승구. “이성과 계시 문제에 대한 찰스 핫지의 견해,” 『찰스 핫지의 신학』, 길자연, 강웅산 편저, 서울:
 솔로몬, 2009.
- 전대경, 아더 피어선의 변증적 방법론으로서의 성서 해석 원리, Ph.D. 평택대학교, 2011
- 피어선 D. L. 『아더 피어선의 생애와 신앙』, 서울: 보이즈사. 1986.
- Fowler, Thomas. Bacon's *Novem Organum*, Edited by, Thomas Fowler, Oxford: The
 Clarendon Press, 1889.
- Gutjahr, Paul C. *Charles Hodge: Guardian of American Orthodox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 Hedges, Paul. *Controversies in Contemporary Religion: Education, Law, Politics, Society, and
 Spirituality*, Santa Barbara: Praeger, 2014.
- “Modes of persuasion,” https://en.wikipedia.org/wiki/Modes_of_persuasion.